



봄의 시작을 알리는 절기상춘분(春分)을 하루 앞둔 19일 전남 광양시 다압면 매화마을에 매화가 만개해 있다. /뉴스시스

흰·붉은매화 만개한 광양... “나만 보기 아깝다” 감탄·찰칵

광양 매화마을 축제, 흰·붉은 매화 만개... 다양한 연령 상춘객, 매화 품고 웃음꽃

“매화가 만개한 걸 보니 봄이 오긴 왔나 봅니다.”

‘제25회 광양 매화축제’가 열리는 19일 오후 전남 광양시 다압면 매화마을 일원. 마을 일대는 만개한 매화들로 봄의 정취를 물씬 풍겼다.

축제를 대표하는 매화는 희고 붉은 빛깔로 상춘객을 맞았다. 매화 사이사이 봄의 대표 꽃 산수유도 자태를 뽐내며 축제장은 절정으로 향하는 봄을 화폭에 담은 듯했다.

부드러운 봄바람이 매화 가지를 스치며 꽃잎 몇 점을 흩뿌리자 땅바닥에 떨어진 꽃잎들이 부드러운 용단처럼 깔려 발걸음을 가볍게 만들었다.

공기 중에 은은히 퍼지는 매화 향기는 코끝을 간질였고 언덕배기마다 빼곡히 들어선 매화나무들은 하얀 눈발처럼 피어올라 장관을 이뤘다.

축제에는 전국 각지에서 단체로 온 상춘객부터 유모차를 끄는 부부, 손잡은 노부부, 연인 등 다양한 연령층으로 붐볐다.

매화에 매료된 이들은 스마트폰으로 연신 그 모습을 담았다. 이곳저곳 사진 포인트를 찾아 인생샷을 건지거나 돛자리를 펴고 여유를 만끽하며 각자 봄을 즐겼다.

매화 터널로 불리는 좁은 오솔길에서는 젊은 연인들이 서로 포즈를 잡아주며 웃음꽃을 피웠고 언덕 꼭대기 전망대에서는 ‘와, 진짜 명화 같아’ ‘나만 보기 아깝다’ 등

의 감탄사를 터뜨리며 풍경을 담았다.

매화는 겨울 추위를 견디며 가장 먼저 피어나는 꽃이다. 봄의 전령이자 강인함과 고결함을 상징한다. 이른 봄 2~3월에 잎보다 앞서 흰색이나 연홍색, 붉은색 꽃을 피우며 진한 향기로 상춘객을 매료시킨다.

경기도 일산에서 버스 투어로 내려온 김모(50대)씨는 “매년 이 시기 광양 매화부터 본다. 도시에서 말을 수 없는 이 향기와 풍경이 힐링이다. 다행히 매화가 만개해 올해도 좋은 기운 받아간다”며 웃었다. 동행 지인들도 “올해 매화가 예년보다 화려한 것 같다. 멀리서 온 보람이 있다”고 입을 모았다.

제주도에서 온 고모(60대)씨는 “광양

매화를 보기 위해 전날 저녁 비행기를 타고 왔다”며 “전망대에서 만개한 매화를 보니 마음이 무척 설렌다. 봄이 오긴 왔다”고 말했다.

광양매화축제는 22일까지 진행된다. 올해 축제는 공연, 전시, 체험, 먹거리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운영된다. 차 없는 꽃길, 바가지 없는 소매, 1회용품 없는 친환경 축제 등 ‘3무(無) 축제’로 열리고 있다.

광양신문 기자



강기정 광주광역시장이 19일 오전 송원대학교 학생회관에서 ‘광주광역시 통합특별법 이야기’ 행사에 참석해 통합특별법의 주요 내용과 통합 이후 변화상에 대해 청년들과 대화하고 있다. /광주시제공

강기정 시장, 송원대서 청년들과 통합 소통 “통합, 청년에 기회 주는 청년일자리특별시”

강기정 광주광역시장이 지역 대학생들을 만나 광주전남 통합 이후 청년 정책에 대해 소통했다.

광주광역시(시장 강기정)는 19일 송원대학교 학생회관에서 ‘광주광역시 통합특별법 이야기’ 행사를 열어 통합특별법의 주요 내용과 통합 이후 변화상에 대해 청년들과 대화했다.

이번 행사는 통합특별법의 미래 주역이 될 지역 대학생·청년들의 생각과 질문을 직접 듣고 광주전남 통합의 실질적 체감을 돕기 위해 마련했다.

행사는 강기정 시장을 비롯해 최수태 송원대학교 총장과 대학생 등 150여명이 참석해 통합과 지역의 미래에 대해 자유롭게 의견을 나눴다.

강 시장은 먼저 광주전남 통합에 대한 정부 특전(인센티브)과 통합특별시 출범이 지역 산업·일자리·생활 여건에 가져올 변화 등을 소개했다.

청년 지원 특별법 특례와 정책 방향으로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청 청년 일자리 구축 ▲청년 지원정책 재정 지원 ▲인재 고용 지원 및 촉진 ▲청년발전기금 설치 등을 설명했다. 특히 특별법에 반영된 ‘청년발전기금’은 청년 지원 정책을 안정적으로 뒷받침할 제도적 기반이라고 강조했다.

대학생·청년들은 이어진 질의응답에서 통합 이후 지역 발전 방향, 청년 일자리에 나타날 변화, 정주여건 개선 등에 큰 관심을 보이며 활발한 토론을 이어갔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광주전남 통합은 청년들에게 기회를 주는 청년일자리특별시를 만들기 위한 것”이라며 “통합 이후 광주의 장점과 전남의 장점을 모아 시너지를 일으키고, 청년들이 가고 자란 지역에서 일하며 삶을 꾸리고 누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승원 기자

광주시민단체 “5월 전 옛 전남도청 운영 주체 정해야”

옛 전남도청 복원을 위한 범시민대책위는 19일 입장문을 내고 “복원된 옛 전남도청은 독립된 국가기관으로 운영돼야 한다”며 정부를 향해 옛 전남도청 운영 주체 결정을 촉구했다.

단체는 “5·18민주화운동 최후 항쟁지 옛 전남도청은 오월 항쟁 중심지이자 오월 정신의 세계화를 위한 가장 중요한 거점”이라며 “복원된 옛 전남도청은 그에 걸맞는 정부조직이 직접 운영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문화체육관광부가 1차 소속 기관으로서 지위를 갖고, 본래 취지와 다른 국립아시아문화전당과는 별도로 운영되는 것이 마땅하다”며 “하지만 개관

을 앞둔 이 시점까지도 임시조직이 옛 전남도청은 운영 중이다”고 지적했다.

또 “복원 주체인 문화체육관광부는 운영의 주체로서도 입장을 명확히 하고 5월이 오기 전 그 절차를 마무리해야 할 것”이라며 “또 하나의 주체인 광주시도 복원 과정에서 있었던 숙의 과정을 복기하며 즉각 입장을 발표하라”고 촉구했다.

옛 전남도청은 1980년 5월 신군부 폭압에 맞서 민주·평화·인권을 염원하며 도청으로 모인 대학생·시민들이 민족민주대성회를 연 항쟁의 산실이다.

계엄군의 무자비한 폭력에 맞선 시민군이 상항실 등을 설치한 항쟁 근거

지이며, 5월27일 계엄군 최후진압 당시 마지막까지 분투한 5·18 대표 사적지다.

전남도청이 지난 2005년 전남 무안군으로 이전한 뒤 비어있다가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건립 사업으로 별관 일부가 헐리기도 했다.

문화체육관광부 옛 전남도청 복원추진단은 2023년 10월 일형 복원 공사에 착공, 최근 마무리되어 지난달 28일부터 임시 개방해 시범 운영 중이다.

복원추진단은 다음달 5일까지 시범 운영을 마친 뒤 전시 환경과 해설 방식, 관람 동선 등을 보완해 오는 5월 정식 개관한다. /기동취재부

광주시, 봄나들이철 ‘먹거리 안전’ 챙긴다

공원·놀이시설 인근 음식점·카페 등 150곳 대상

김밥·떡볶이·햄버거 등 조리식품 수거 검사 병행

광주광역시(시장 강기정)는 봄나들이철을 맞아 시민 이용이 증가하는 다중이용시설 주변 식품위생업소 150개소를 대상으로 오는 23일부터 27일까지 위생관리 실태를 집중 점검한다.

광주시는 5개 자치구 공무원과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등으로 5개 점검반을 꾸려 현장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번 점검은 야외활동이 늘어나는 시기

에 식중독 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불꽃 탐방시설(국·공립공원), 유원지, 기차역, 터미널, 놀이공원 등 다중이용시설 인근 음식점·푸드트럭·카페 등 150곳이 대상이다.

주요 점검내용은 ▲소비기한 경과 식품 판매·사용·보관 여부 ▲조리장 등 위생적 관리 ▲식품의 보관온도 준수 여부 ▲음식물 재사용 여부 ▲기타 식품위생법 준

수 여부 등이다.

광주시는 이와 함께 시민들이 많이 섭취하는 김밥, 떡볶이, 햄버거 등 조리식품 20건을 수거해 광주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 식중독균 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광주시는 점검 결과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 조치하고, 위반 사항이 적발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행정처분할 방침이다.

박정환 복지건강국장은 “봄나들이철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음식점 등에 대해 사전 위생점검을 강화해 식품안전사고를 예방하겠다”며 “안전하고 위생적인 먹거리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전광훈 기자

www.hshi.co.kr

세계 최초 LNG 추진 대형 유조선



114K COT, SOVCOMFLOT

새로운 환경 기술로 조선해양산업의 미래를 개척합니다.

미세먼지 없는 지구, LNG추진선박이 이끌어갑니다.

